

고은 불교대하소설

암살 사건

천 막 몇개의 속소는 때마침 바람 한점도 없는 상태의 죽은듯한 사막의 밤을 온통 평화롭게 만들었다.

먼 거리를 지나온 사람들의 피로가 풀리는 중이었고 천막밖의 나뭇잎도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무릎무상의 경지로 눈을 반쯤 감고 잠들어 있었다.

타림하의 물은 맑다. 그 물속에 고기 한 마리 있을리 없었다. 귀머거리가 아닌 밝은 귀를 가지고도 어떤 물소리도 들을 수 없게 그 물은 거의 멈춰 있었다.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형제의 부인을 아내로 삼는다...

그런데 이런 흉노족의 자유분방한 풍속 가운데서도 단연 이채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들 중의 뛰어난 소년인 영감에 넘쳐 밤하늘의 별빛을 보고 내일의 일을 예언하는 일이다.

"아버지! 내일은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관 속에서 한족(漢族) 군대들이 내일 모래바람 속으로 달려오니까요."

이런 소년의 아버지인 한 흉노군 간부에 해당하는 전령영웅은 "하하 내 자식에게 활과 칼 대신 잠자리! 이것이야말로 내 조상에 대해서 변복없는 걸"이라고 개탄하면서도 은근히 아들의 말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다음날을 주목하는 것이었다.

그의 아들이 말한대로 한족은 그들이 자랑했던 서역도호부를 재탈환하기 위한 기습작전을 감행하였다. 하지만 흉노족은 한족의 기습에 앞서 그 기습병력을 후방과 단절시켜 모조리 포로로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흉노족의 간부는 그의 아들의 점성술(占星術) 때문에 최고 원수인 한(漢)의 특명으로 그 아들보다 계급이 낮게 될만큼 아들이 뜻밖에도 전령영웅으로 승진되었다.

흉노족의 별에 대한 오묘한 예언은 이런 점정에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죽는 일이나 누군가가 다른 곳으로 볼래 떠나는 일까지도 미리 알 수 있을만큼 별과 인간과의 교감에 의한 미래과일이 가능하였다.

타림하 기슭의 한 천막 안에서 잠들었던 소년이 문득 잠이 깨어나 천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저 별이 이상하다!"

라고 소년은 아직도 눈가에 남은 잠을 훔어버린채 혼자 놀라는 것이었다. 당직



원들에게 의었다. 외치는 동안 입안에 모래가 스며들었다.

"땀! 땀!"

그는 입안의 모래를 자꾸 내뱉어야 하였다.

"아 하늘에는 가마귀 한 놈 없고 땅에는 들쥐 한 놈 없다."

이런 모래바람 속의 행렬에는 오직 늙은 나뭇가지가 필요하다. 그런 나뭇가지와 코를 모래속에 박고 있던 아침에 사막들은 오늘의 모래바람을 짐작하였다.

나뭇들의 울음소리가 한층 더 그 행렬을 처절하게 만들었다.

갈대 그 강도집단의 행렬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무서운

(昌圖) 귀족의 후어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불행과 함께 지라난 무장(武將)인데 난세를 거치는 동안 그는 천나라 도위부에도 속해 있다가 반청노선의 세력에 속해 있기도 하다가 이제는 국적 따위가 필요없는 불교에 정신의 뿌리를 둔 유령강도집단을 이끌게 된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5계(五戒) 중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율을 입에 읊지 않는다. 그들의 강도행위는 이 사막에서 사는 극빈자를 구호하기 위한 의적(義賊)의 그것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일행은 가장 잘 사막에 익숙한 행진으로 며칠동안 누란족으로 갔다.

"나는 고창국 영웅의 자손이란 말이야"
두령은 그들의 집단을 하나로 만들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생각을 숨기고 있었다. 그러나...

북동쪽에서 불어다치는 카라부람(黑風)과 사막부람(黃風)이 서로 으르렁대며 지주 않으려고 휘몰아치고 있었다.

"도대체 이런 죽음의 사막에 원놈의 나라들이 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었단가?"

"한나라 서역도호부에 의하면 이 일대의 오아시스국가 55개국이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다는 것이 사실이지... 그 뒤 한족이 말하는 36국도 36이라는 수(數)가 실수(實數)가 아니라 무수(無數)였다 말이야."

행렬이 서로 나뉘는 머리를 안으로 모여 한 원(圓)을 이루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동안 모래바람의 기세가 좀 누그러지기 시작하였다.

한 검정수염의 위궤족 사내가 목을 펴며 말했다.

그러나 지금 누란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두령의 사사로운 집념 때문이었다. 그 집념은 누란의 유적은 그 일대가 건조한 폐허로 뒤가 진은 은성했던 사막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었다.

두령은 왕이 될 생각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따금 야광새(夜光蟲)에 술을 가득 부어 들어올리면서 "나는 고창국 영웅의 자손이란 말이야" 라고 으시대는 것도 그런 생각의 한 자리가 휘가를 통해 숨쉬기 나온 것이지 모른다.

청동으로 된 불구(佛具), 무기, 예 화폐, 장신구, 구부의 귀중한 보물 따위를 발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상(大藏) 따위나 타는 강도집보다 훨씬 값진 보물이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이런 커다란 수확

가슴 한복판에 단점을 꽃았다... 두령은 어둠속에서 쓰러졌다

오직 이 밤을 지켜주는 것은 하늘 가득 찬 별빛들이었다. 상현달이 이 일대의 터무니없는 듯한 허공을 다이상 비추지 못하고 저버린 뒤로부터 별빛들이아달로 우주의 모든 의지들이 총동원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 흉노열전(匈奴列傳)은 일찍이 이 사막까지 아울러 그들의 세상으로 만들었던 흉노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어린 아이들도 양을 잘 타며, 활을 쏘아 새와 쥐를 잡는다. 좀더 지나서는 토끼와 여우를 잡아 먹는다. 언제나 강력한 무력으로 침략 공격을 감행하여 전황이 유리하면 전진하고 불리하면 후퇴하는데, 도망가는 것도 수척로 여기지 않는다. 젊은이는 기뻐지고 맛 좋은 것을 먹고 노인들은 그들이 낚긴 것을 먹는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생모가 아닌 경우 그 미망인을

보초병이 "무슨 일이나"라고 소년에게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는 오름을 싸고난 뒤의 진지리로 당황한 사실을 숨긴채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천막 안은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 이외에도 이따금 들리는 잠꼬대나 코고는 소리와 함께 살아있는 목숨이 휴식하는 신성함으로서 마치 그 안에만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평화로 가득하였다.

날마다 상대방파의 대결이나 습격을 일삼는 무리에게는 그들의 집안이 오직 그들도 얼마든지 세상의 선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남방 한족의 농촌에서 구해온 무소의 불로 만든 피리의 묵직한 소리로 기상명령이 떨어졌다.

그르릉 거칠기 짝이 없는 강도집단일지라도 그 피리소리에 의해서 아주 잘 훈련

된 병사들처럼 제법은 동작으로 일어나 침구 따위를 정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세수따위를 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자연정화에 의존하고 있었다.

불 이는 그의 담담하게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오늘 중에 목격자에 도착합니까?"

"천만에... 오늘 목격자가 알려질 예정이지 그곳에 도착했다던가 하는 일은 두령에게 달려있는 것이요... 그런 것이나 중공해 하는 것이 당신들의 공부입니까?"

사뭇 길쭉해 가까운 반응이었다.

일행은 딱딱한 밀가루 전병을 그 두꺼운 것을 뜯어 먹는 것으로 아침을 때웠다.

그런 다음 누란과 혼란 사이의 절반 대중에 해당하는 하서회랑(河西回廊) 동쪽으로 바락 나이기는 행진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제 타림분지의 끝없는 사막을 뒤로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모래바람은 그 세찬 바람속의 작은 총알과도 같은 모래들이 사람의 뼈에 박히기도 하는 정도였다. 그런데 그 모래는 모래뿐 아니라 황토가 섞여 있어 황사라고 말해야 하였다.

그래서 이 일대에는 진흙을 이겨 세운 도시와 벽들을 구워서 만든 도시의 중앙도로가 여기저기 유적으로 남아있는지 모른다. 그런 도시의 중심부에서 항상 지배자의 창고만 발견하면 하루아침에 거부가 될만한 보물들이 눈앞에서 풀이진 생사인지 모르게 버릴거리 될 것이다.

"나타가 쓰러질 지경이다. 바락 정신 차려라. 이게 어디 바람이란 말이나. 악귀(惡鬼)다. 악귀! 옛날 법전(法顯)화상이 남긴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라고 불어의 담담이 그의 뒤를 잇는 데

"미친 년! 네년의 가래가 꼭 짙어져라."

그런데 다른 사내가 그 사내의 통박을 나타 채찍으로 후려쳤다.

"이 자식이, 성스러운 바람을 미친년에 견주면 네 놈은 어떤 마귀 구더기에서 온 놈이냐?"

사실 그 강도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막의 여러군데에서 모여든 것이다. 그들은 사막 밖의 초원에서 망명해온 자도 있거나 천나라에서 도망쳐온 자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광활한 사막 일대에서 일종의 신앙처럼 생겨난 모래바람에 대한 외경심을 통 모르고 함부로 그런 모래바람에 목숨을 건져대는 일이 있는 것이다.

천산(天山)으로 아래의 타림하(河)는 로브사막을 지나면 사막에 그 꼬리를 물어버린다.

강도집단의 두령은 본디 옛 고창국(高

창國) 귀족의 후어로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불행과 함께 지라난 무장(武將)인데 난세를 거치는 동안 그는 천나라 도위부에도 속해 있다가 반청노선의 세력에 속해 있기도 하다가 이제는 국적 따위가 필요없는 불교에 정신의 뿌리를 둔 유령강도집단을 이끌게 된 것이다.

그들은 아무도 5계(五戒) 중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율을 입에 읊지 않는다. 그들의 강도행위는 이 사막에서 사는 극빈자를 구호하기 위한 의적(義賊)의 그것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일행은 가장 잘 사막에 익숙한 행진으로 며칠동안 누란족으로 갔다.

그러나 지금 누란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두령의 사사로운 집념 때문이었다. 그 집념은 누란의 유적은 그 일대가 건조한 폐허로 뒤가 진은 은성했던 사막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이었다.

두령은 왕이 될 생각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이따금 야광새(夜光蟲)에 술을 가득 부어 들어올리면서 "나는 고창국 영웅의 자손이란 말이야" 라고 으시대는 것도 그런 생각의 한 자리가 휘가를 통해 숨쉬기 나온 것이지 모른다.

청동으로 된 불구(佛具), 무기, 예 화폐, 장신구, 구부의 귀중한 보물 따위를 발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대상(大藏) 따위나 타는 강도집보다 훨씬 값진 보물이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이런 커다란 수확

불교가 어려워서 찢찢매는 분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고 친절한 무비스님의 불교 안내서!

신간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글씨도 보기 좋습니다. 이 책은 무비스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는 듯한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딱딱한 교리도 놀랄만치 쉽게 설명합니다.

근래 불교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느끼는 것은 불교책이 모두 어려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빨벌했다고 합니다.

우리시대 불교의 석학인신 무비(無比)스님이 펴낸 《불교공부》는 불교방송에서 강연한 내용으로 우리같은 초심자나 신도들에게는 물론 불교에 심취해 있는 분들에게도 더없이 친절하고 반가운 안내자입니다.

또해나의 역작 무비(無比)스님 원역 한글 회염경 전 12권(값 160,000원)

민족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 732-2403 ~ 4 팩스 739-7565

*이 책은 불교방송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법보시 주문은 할인에 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3

능가스님의 알기쉬운

법화경강설

釋能嘉撰 / 價 4,000원

능가(能嘉)스님이 대승경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화경을 현대인이 알기 쉽게 풀어쓴 역서! 노스님의 지혜와 애정이 배어있는 쉬운 법화경.

佛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선8/0 101호 전화 (02)738-6270, 735-7202 FAX (02)733-1016

현대불교신문

1. 문수리소설 마하반야바라밀경 9호책역·釋能嘉撰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직접 삼한 경으로 일행삼매(一往三昧)를 통한 진리의 도당을 강조한 지혜의 보고 값 / 3,000원
2. 대장부론 9호책역·釋能嘉撰 물질에 쫓겨 현대인에게 보시를 통한 자아의 발견과 보다 나은 인간세상 건설을 위한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 값 / 3,000원
3. 법화경 강설 釋能嘉撰
4. 육묘법문 9호책역·釋能嘉撰 옛 승려가 빨리 깨달음을 얻으려는 중생에게 부처님의 행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시술한 지혜의 샘 값 / 3,000원
5. 금강경 육조해 9호책역·釋能嘉撰
6. 반야경 9호책역·釋能嘉撰

*대승기회의 현대불교 신문은 알찬 내용을 담아 계속 간행됩니다.